

# 중국이 보는 한반도 통일

2018.05.08

# 기존의 접근과 관심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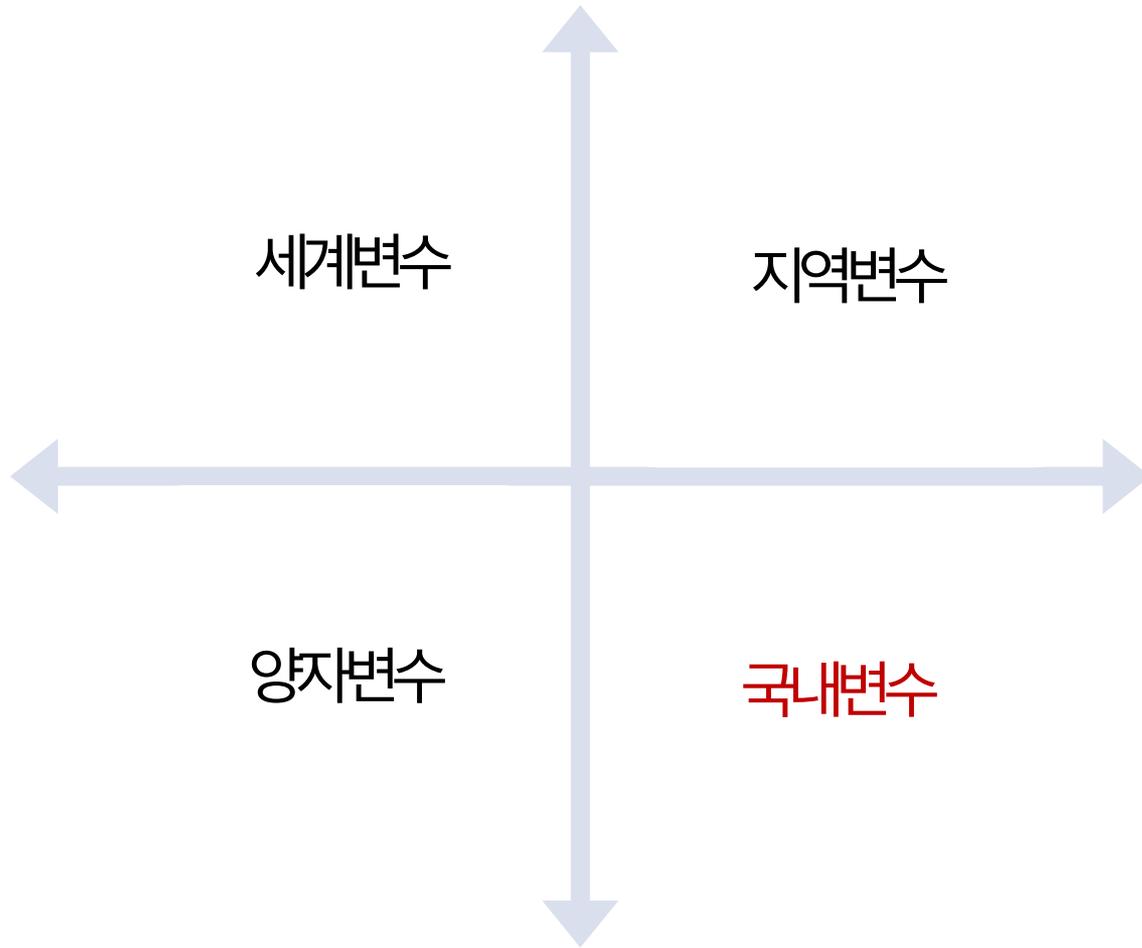
시각: 냉전·신냉전 시각

분야: 국제정치, 정치외교, 국제관계 등

장점: 국제질서(국제다자, 지역다자, 양자간) 이해의 분명한 분석적·해석적 도식을 제공

간과: 국내적 변수(상대적)

# 주안점



# 중국?

“시민사회”? 대중?

정부? 중앙정부? 지방정부?

지식엘리트? 정치엘리트? 경제엘리트?

다양한 행위주체, 다양한 스펙트럼, “중국”의 범위 설정 필요

# 한반도와 “밀접한” 중국의 지역(region) ?



# 통일?

한반도에 하나의 합법적 체제/정부가 만들어 지는 것?

남북이 위임기구를 만들어 “EU” 같은 체제로 가는 것?

사회·경제·정치적 교류를 강화한 “통합”을 통일의 한 과정/측면으로 보는 것?

또 다른 무엇?

(서울대 통평원의 통합지수 연구의 이론·철학에 기초하여...)

“중국이 보는 한반도 통일”의 한 측면

“중국 동북지역에게 있어 남북의 ‘통합’은 어떤 의미인가?”

- 중국의 발전 전략과 정책
- 지역격차
- 동북지역?

- 중국 동북지역 개발의 “아웃소싱”
- UNDP의 주도

# 1991년의 Mission Report에 대한 평가

- TRADP의 본격적 시행단계(Investment Implementation Phase) 이전에 투자선단계(Preliminary Phase) 설정,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종합계획안(Master Plan)을 작성하여 참가국이 참고하게 하는 것
- TREZ에 각국 토지 임대 방식으로 제공한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, 각국이 출자하여 두만강지역개발회사(Tumen River Area Development Company, TRADCO)를 설립하여 공동개발의 주체로 만드는 제안
- 일부 전문가들은 두만강 3각주에 국제도시를 건설하자는 제안도 포함
- 평가:
  1. MP의 개발방안, 개발우선순위, 입지선택문제에 대한 두만강인접 3국 의 이해관계가 상이함  
중국: 두만강 출해권 회복, 훈춘 방천 지역 개발에 관심  
북한: 두만강 하구 공동개발은 관심 없고, 함경북도 북부를 랜드 브릿지로 만들어 나산선봉 지역 중심의 동해안 항구 개발에 관심  
러시아: 두만강 인접한 지역 개발은 관심 없고, 블라디보스토크나 후타기 개발에 적극적임
  2. 주권 문제를 어떻게 양보할지의 이견
  3. 개발자금의 확보가 난제  
북한: 러시아 몽골의 국내 경제 상황이 안 좋음  
중국: 중앙 정부의 투자 우선 지역이라고 하기 어려움 (상해, 삼천 등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)  
한국: 북한, 중국, 러시아 등의 공산권 국가 외의 '불산'이여 전한 상태  
일본: 역시 한국과 비슷한 입장  
미국의 직접적 참여가 없기에 국제 금융 기구의 공식 및 적극적 참여도 어려움

# 중국이 바라는 것?

내용	참여주체	한계
인프라건설	UNDP	용자의 어려움, 투자자 부재
외자 및 기술 유치	한국, 일본(옵저버)	남북관계, 러일관계(옵션)
수출입 창구	북한, 러시아	남북관계, 러일관계(옵션)

- UNDP 발전 계획의 한계들.
- 중국 동북지역 개발의 “인소싱”

# 중국이 바라는 것? 현실?

내용	희망 참여주체	주체 변화(공여정책)
인프라건설	UNDP	중국
외자및기술유치	한국, 일본(옵저버)	국내동남부
수출입창구	북한, 러시아	나진항(제약)

“중국 동북지역에게 있어 남북의 ‘통합’은 어떤 의미인가?”